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음 8월 10일) 제28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추석 명절 방역수칙 최소한의 안전장치'

전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 도민에 적극 동참 호소  
"이동·접촉, 확산 주원인... 만남·모임 자제" 강조  
"부득이하게 고향 방문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발표문을 통해 "올해 고향 방문을 기약했던 출향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하지만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고향을 사방하고 그리워하는 만큼 거리두기와 명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참으며,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협조해주고 계신 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 호소문을 시작했다.

또한 "이동과 접촉은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명절 이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되느냐 안정되느냐가 결정될 것이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최근 9월에 일 평균 환자발생이 22명으로 8월 26.5명에 비해 다소 안정돼 가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만남 시간을 40%로 줄이면, 감염위험이 60%에서 35%로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명절 연휴 동안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혹시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모임 횟수와 시간을 줄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한다면, 방문 전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진단검사, 연휴 이후 일상에 복귀하기 전에도 반드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전북 천리길 등 도내 14개 시군의 둘레길 생태길, 마실길 이용을 적극 추천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추석 명절,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안병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거리두기와 명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의 사랑을 전하는 안전하고 소박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5일 원광대병원을 찾아 윤권하 병원장과 함께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 "의료진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송하진 도지사, 원광대병원 찾아 코로나19 중환자실 의료진 격려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15일 원광대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가 방문한 원광대병원은 국가지정응급 3병상과 중증환자전담 8병상 등 총 11개의 병상을 확보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시설이다.

지난해 2월부터 문을 연 원광대병원 코로나19 중환자실은 위중증 환자 56명을 치료하며, 도민의 귀한 삶을 살려내고 있다.

도내 코로나19 중환자실은 전북대학교병원·원광대학교병원·예수병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중환자실은 일반 중환자실보다 의료진이 2~4배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 지사는 도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격려물품을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 입원치료 병동, 음압격리 병동을 돌아보며 음압병실 운영·시설 장비 현황을 살피고 확진자 관리체계도 꼼꼼히 점검했다.

송 지사는 "최일선에서 매일 밤낮 없이 근무하는 의료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 차원에서 의료진들의 번아웃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며 "전북도민들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38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1,000여 명이 코로나19 환자치료를 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도,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박차

지난해 11월 SK컨소시엄 아시아 데이터센터 협약 따라  
투자 촉진·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목적 전담 대응팀 구성  
"아직은 시작단계... 대선공약 반영 국가사업 추진 최선"

지난해 11월 SK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원 규모로 아시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협약한 가운데, 전북도가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 주재로 관련 6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전담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TF는 전북형 디지털 뉴딜 핵심사업인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가 투자유치 및 연관산업 육성, SK 데이터센터 투자 촉진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목적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창업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SK 컨소시엄의 새만금 투자 상황과 투자 촉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SK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새만금 산업단지(2·5공구) 일대에 창업클러스터(1천억 원) 및 데이터센터(2조 원)를 구축하기로 새만금개발청·전북도 등과 협약한 바 있다.

이에 SK는 2023년까지 창업 보육공간을 포함한 컬처센터(가칭)를 구축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창업클러스터 건축 설계와 데이터센터 기업유치를 진행 중이다. 도는 SK 투자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계통망 등 기반시설을 속도감 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SK데이터센터 유치와 연계해 새만금 지역에 특화된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2021년부터 2029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전북연구원의 정책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기본계획은 ▲클러스터 최고 수준의 인프라 우수성 확보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 데이터센터 브랜드 이미지 제고 ▲혁신 클러스터 기반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 등 3대 추진전략, 7개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이에, 도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 ▲SW·ICT 진흥단지 조성, ▲데이터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차세대 데이터센터 R&D 및 실증 ▲주력산업 고도화 빅데이터 확보 ▲데이터 거래소 구축, ▲데이터·AI 전문인력 양성 등 7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전북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낼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지만 대선공약에 반영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020-2022 문화관광축제 전라북도최우수축제

# 2021 진안 백세인생 천년기운 홍삼축제

10.08.금 ~ 10.10.일

QR코드를 스캔해 진안홍삼축제를 만나보세요!

YouTube | **빠망TV** | 검색 | 포털검색창 | **진안홍삼축제** | 검색

주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 문의처 063)430-2391~3 | www.jinan.go.kr/festival